
韓 · 英語의 時制 比較

康 壽 彦

차 례

- | | |
|---------------|--------------------|
| 1. 序 言 | 6. 過去形의 韓英比較 |
| 2. 時間과 言語表現 | 7. 大過去의 韓英比較 |
| 3. 韓英語의 時制와 相 | 8. 未來形의 韓英比較 |
| 4. 現在形의 韓英比較 | 9. 結 言 |
| 5. 進行形의 韓英比較 | Summary in English |

1. 序 言

時制란, 우리 生活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時間의 經過를 動詞의 形態에 의하여 나타내려는 人間의 努力이라 할 수 있다. 本稿는 이러한 人間努力의 一部를, 韓英語의 比較를 통하여, 意味機能面에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比較方法은, 言及 順序의 先後와는 關係없이, 먼저 英語의 時制를 생각하고 그 결과 형성되는

腦裡의 결론을 韓國語의 時相形態 (Tense-Aspect Forms)¹⁾의 의미분석에 適用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 방법은 虛心하고 等距離的인 관찰보다 偏差가 한결 커질 危險性이 있긴 하나, 觀點의 移動에 따른 利得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 나뉠대로 意義가 있다고 믿고 싶다. 이렇듯 英語 時制를 思考의 拋點으로 삼기 때문에 本고의 논술 과정에 있어서 時制的 要素와 相 (Aspect) 的 要素를 엄밀하게 따르다로 分析 抽出하지 아니하며, 또한 韓國語의 形容詞를 動詞範疇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前者는 Chomsky의 Aux 概念²⁾의 원용이고, 後者는 生成意味論의 〔±Verb〕 概念³⁾의 원용이다. 그러나 全体的으로는 어느 特定 理論에 拘애됨이 없이 多角度로 各 時相形態의 의미기능에 接近하고자 한다.

本고의 論述 順序는 우선 言語의 時間表現을 原点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韓英語의 現在形, 進行形, 過去形, 過去完了形 및 未來形을 各 比較 考察하기로 한다.

2. 時間과 言語表現

2-1 (時間과 言語) 時間이란 것은, 말하자면 “萬有人力”처럼,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實체이지만 그래도 人間의 頭腦가 만들어 낸 概念이기 때문에 다른 “人間의 知慧”와 마찬가지로 여러 學問—心理學, 物理學, 言語學, 人類學等—이 여러 側面으로부터 高찰의 對象으로 삼을 수 있다.

言語學에 있어서는 時間과 言語가 어떻게 關聯되어 있느냐, 곧 言語表現에 時間이 어떻게 反映되어 있으며, 言語生活에 있어서 言衆이 時間을 어떻게 体系的으로 把握하고, 어떻게 處理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時間의 철학적 本質을 해명하는 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言語와 時間의 關聯에 있어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모든 自然言語가 “어제, 오늘, 내일, 아까, 지금”과 같은 時間語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時間語는 名詞인 동시에 또한 副詞로 쓰인다는 現象으로서, 이는 人間言語의 一般像을 추구하는 立場에서 매우 興味로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語彙問題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言語構造에 있어서 言衆이 어떻게 時間을 포착하고 어떻게 体系化하고 있느냐 하는 問題일 것이다.

- 1) 韓國語의 時間關係 形態素들은 時制만을 이르거나 相만을 이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時制와 相의 混合體”로 보는 立場을 택한다. cf. 金석득 (1974) “韓國語의 時相” [한글연구 제 1집] 연세대학교 한글연구소.
- 2) 그의 範疇規則 “Aux → Tense (Modal) (Perfect) (Progressive)”이 말하듯이, Chomsky는 時制, 未來形, 完了形, 進行形을 各 各 서로 다른 “類”로 區別하면서도, 결국 이들을 “Aux”로 統合하고 있다. cf.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pp. 42~44.
- 3) Lakoff는 動詞와 形容詞를 同一 範疇 V로 統合하고, 필요시에만 〔±Verb〕라는 特徵에 의하여 양자 를 下位區分한다. cf.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言語構造에 시간이 反映되는 방식으로는 時制(Tense)와 相(Aspect)과 叙法(Mood)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文法形態는 모두 動詞에 나타난다. 이를테면 “책상”이니 “바다”이니 하는 語形에서는 時間과의 關聯性을 찾지 못하지만, “걷는다” 또는 “걸었다”의 語形에는 時間的 要素가 표출 되어 있다. 이렇듯 動詞가 時間을 나타낸다는 것은 宇宙原理의 一面이라 할 수 있다. 이 宇宙의 모든 現象은 간단없이 變化하며, 또 그 變化를 觀察 내지 經驗하는 人間의 心理와 行動도 간단없이 變化한다. 우리 人間들은 이러한 變化로 말미암아 時間을 意識하게 되고 그 變化過程을 언어로 表現하고자 할 때 動詞라는 品詞가 생겨나고, 그 動詞는 時間을 나타내는 形態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어떤 過程을 具體적으로⁴⁾ 생각함에 있어서 「時間」을 배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동사가 時間的 意味를 갖는 形態를 時制(Tense)라고 부르고 있다. 時間概念은 全人類에 공통이지만, 時制는 동사의 形態이기 때문에 言語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 形態는 個個의 語句에 無計劃的·散發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統一的·体系的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文法範疇이다.⁵⁾ 그러나 이 時間表現의 形態는 그 의미에 있어서 動作의 “樣相”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相(Aspect)과 叙法(Mood)과도 密接한 關係를 맺게 된다.

2-2(時制와 相) 言衆은 어떤 동작을, 現在·過去·未來의 時間的 区分과 관계없이, 그 “樣相”에서 포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그 동작이 “完了하였다” “繼續中이다” “바야흐로 開始하려고 한다”, 혹은 그 動作/作用은 “動的이다” “靜的이다” 또는 “瞬間的이다” “持續的이다” “反復的이다” 하는 식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相(Aspect)으로 파악하는 경우,⁶⁾ 동사의 意味속에 內在하는 時間의 長短이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A라는 동작이 繼續中이라 하면, 그 動作 時間이 B라는 동작이 占有할 時間座標로 펼치는 수가 있으며, 또한 동작의 性質에 따라서는 現實的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까운 未來에 일어남을 뜻하는 경우가

4) 이와 反對로 抽象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超時間的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動詞의 名詞的/形容詞的 表現이 그 例이다.

例 具體的: 우리는 서로 믿었다.

抽象的: 서로 믿음은 아름다운 덕이다.

具體的: I wrote letters.

抽象的: my writing letters (動名詞)

a writing man (現在分詞)

5) “The category of tense has to do with time-relations in so far as those are expressed by systematic grammatical contrast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the category of tense is that it relates the time of action event or state of affairs referred to in the sentence to the time of utterance.”——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04 ~ 305.

6) “Aspects have to do, not with the location of an event in time, but with its temporal distribution or contour.” ——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p.237.

있다. 동작의 完了인 경우에는, 그 完了時點이 現在와 過去의 接合點을 이루기 때문에, 完了를 過去로 인식하기도 하고⁷⁾, “금방 끝났다”라는 意識 때문에 그 結果를 現在에 결부시켜 “現在”로 認識하기도 한다.⁸⁾

본디 많은 요소를 內包하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客觀的으로 時間을 区分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精神活動을 필요로 한다. 이에 反하여 具體的인 동작 작용의 相(Aspect)은 素朴한 精神狀態에서도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言語發達 過程에서는 相的 表現이 먼저 발달 되었고 그것이 훗날 論理的인 時制(Tense) 表現에 轉用되었을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무릇 時間이라든지 過程과 같은 抽象概念은 思考力의 발달에 따라서 精密化되지만, 언어표현의 形式은 매우 保守的이어서 思考의 발달에 발을 맞추어 變化하지 못하므로 從來의 表現형식을 利用하는 彌縫策을 쓰게 된다. 이렇듯 묵은 形式으로 새로운 思考를 表出하여야 하므로 거기에는 歪曲과 矛盾이 있기 마련이다. 文法이 언어구조를 理論的으로 明快하게 裁斷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렇게 言語가 발달 과정에서 非論理的인 變革을 많이 겪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3(時制와 叙法) Tense가 話者와 事象의 時間關係라고 한다면, 事象 자체의 樣相에 대한 언어표현이 Aspect이며, 叙法(Mood)은 事象에 관한 話者의 주관적 心的態度를 나타낸다. 사람은 어떤 事象이 일어나고 있다고 判斷하기도 하고, 否定하기도 하고, 또는 希願하는가 하면 嫌惡하기도 한다. 이러한 話者의 心的態度도 언어로 표출되며, 그 언어표현은 時間表現과 깊은 關聯을 맺는다. “過去事는 再現이 不可能하다”라는 意識이 작용하여, 實現 不可能한 것에 대한 화자의 判斷과 希願은 “過去”와 결부되어 표현된다. 또 “금방 完了한” 일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話者의 確信度는 매우 높아지고⁹⁾, 반대로 未來事는 不確實하다는 心理가 따라붙는다.¹⁰⁾

言語生活에 있어서 言衆이 現實的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렇듯 相(Aspect) 叙法(Mood) 時制(Tense)의 各要素가 뒤섞인 表現들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外的 經驗인 Aspect와 內的 經驗인 Mood가 反省的인 Tense보다 더욱 直接的이라고 할 수 있다. 紀元前의 文獻을 가지고 있는 Sanskrit, Greek, Latin의 未來時制는 Mood와 Aspect의 轉用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未分化의 前論理的인 단계로 부터 論理的인 단계로 발전하여 時間의 区分을 언어적으로 명시하려고 할 때, 既存의 Aspect와 Mood의 表現形態가 轉用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7) 英·獨語의 거의 모든 強變化動詞의 과거형은 원래 完了를 뜻했었고, 仏語의 單純過去(Passé simple)도 라틴語의 現在完了에서 유래한 것이다. Caesar의 絶句 “vēnī, vīdī, vīcī(= I came, I saw, I conquered)”도 現在完了로써 過去를 나타낸 例이다.

8) have got(= have)도 現在完了로써 “現在”를 뜻하고 있다.

9) 現在完了 “Newton has explained the movements of the moon.”의 表現 뒤에는, 話者가 Newton의 설명을 過去事로 생각하면서도 또 설명이 現在도 妥當하다고 믿는 판단이 깔려 있다.

10) This will be her umbrella.는 未來事가 아니라 現在事에 대한 推定이다.

있지만, 그 결과, 意味와 形態는 더욱 錯綜하기에 이른 것이다.

3. 韓英語의 時制와 相

3-1 (言語類型的 二分) 거의 모든 자연언어는 時間表現에 있어서 時制와 相과 叙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叙法도 「말하는 內容」에 대한 話者의 心的 態度를 시간적 「遠近」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時間表現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 叙法の 「假定」「讓步」「不確實」등은 文法形式으로서, 時制 또는 相으로 표시되기 일쑤이므로 시간표현의 大宗은 時制와 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一般적으로 모든 자연언어를 Tense 体系의 語群과 Aspect 体系를 갖는 語群으로 二分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言語類型에 관한 Levy-Bruhl 式 價值觀¹¹⁾에 의하면 덜 進化된 언어일수록 廣義의 Aspect 体系가 보이고, 進化된 언어일수록 Tense 体系가 整備되어 있다. 슬라브語(Slavonic)의 動詞는 Aspect가 本來的인 것이고 Tense는 二次的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든지, “지금까지 Tense 体系로 해석되어온 中國語도 실은 Aspect 体系이다”라는 Henri Maspero의 주장에도 Levy-Bruhl의 影響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觀點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時制的 要素와 相的 要素가 그만큼 뒤섞이고 엉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3-2 (英語의 時制와 相) 영어가 Tense 組織의 言語라는 데는 意見을 같이하면서도, 많은 學者들이 영어의 未來時制를 認定하지 않으며¹²⁾, 더우기 進行形·完了形을 時制組織에 포함시키는 것은 反對하고 있다. 完了形이나 進行形이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단순한 時間的 區別이 아니라 相的 要素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通時的으로 살펴 볼 때 거기에는 두 가지 嚴然한 事實이 있다. 첫째는 동사의 語形이 現在形과 過去形 兩이라는 事實과, 둘째는 이 두 가지 語形에 副詞(句)를 첨가함으로써 여러가지 時間表現을 可能케 하였다는 事實이다. 後期에 이르러 助動詞와의 結合에 의하여 새로운 Tense 또는 Aspect의 表現形式이 창출되었지만 形態論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現在形과 過去形 兩 兩이라는 데는 變함이 없다. 원래 言語란 意思疎通에 쓰여지는 道具이며 그 언어활동은 經驗(즉 過去)과 意見(즉 現在)의 교환이라 할 수 있다. 따

11) cf. Levy-Bruhl, L. (1910) *Les Fonctions mentales dans les sociétés inférieures*. (英語 翻譯版 *How Natives Think* 1920年 發刊)

12) 近來에도 生成文法 理論家들을 비롯하여 R.B. Lees (cf. "Grammatical Terminology in Teaching English", *Language Learning* V, pp. 117-119), E.A. Nida (cf. *A Synopsis of English Syntax*. California: Afghan Institute of Technology, 1951, p. 8), F.R. Palmer (cf. *A Linguistic Study of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s, 1965, pp. 88 ff.). 등이 未來時制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서 過去나 現在 두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나를 標示만 할 수 있다면 充分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도 時制는 一英語에 있어서나, 韓國語에 있어서나—“現在”와 “過去”뿐이다라는 主張은 正當化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時間副詞가 시간표현을 左右하는 사실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發話 全体의 意味에 있어서 時間副詞가 동사의 형태에 못지않게 決定的으로 작용하는 것은 英語 뿐만 아니라 韓國語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너는 내일 죽었다”라는 脅迫은 形態上 過去時制이지만 未來를 뜻하고, I start tomorrow는 現在時制이지만 역시 未來를 나타내고 있다.

3 - 3 (韓國語의 時制와 相) 英語의 時間表現도 이렇거니와, 韓國語의 경우도 다양한 論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時制가 한국어의 文法範疇의 하나로 등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나타난 時相構造에 관한 主張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¹³⁾

- i) 한국어도, 영어의 경우처럼, 過去 現在 未來의 時制範疇로 구성된 一元的 構造이다.
— 周時經, 朴勝彬, 崔鉉培, Ramstedt, 金允經, Martin
- ii) 한국어는 時制와 相(Asspect)으로 구성된 二元的 구조이다. — 李崇寧, 李仁煥, 朴昌海
- iii) 한국어는 時制와 相과 叙法(Mood)으로 구성된 三元的 구조이다. — 羅鎮錫
- iv) 한국어는 時制와 相이 融合된 時相(Tense - Aspect)範疇로 구성되어 있다.
— 徐正洙, 金錫得
- v)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時制가 없고 相과 叙法만이 있다. — 南基心

이렇게 學者들의 견해가 多樣的 것은, 한국어 構造의 特質 때문이지만 또한 時代와 더불어 變遷하는 理論과 언어학적 思潮의 작용도 無視할 수 없다. 즉 1950年代까지는 西歐의 傳統文法과 構造言語學의 이론을 적용하여 形態論的 立場에서 時制의 分類를 시도하였고, 1960年代에는 과거의 模倣을 脫皮하여 한국어의 특질에 알맞는 時制範疇의 설정을 위하여 意味論的 觀點에서 分析 整理하였으며, 1970年代에 와서는 統辭論과 意味論이 不可分의 一體임을 강조하는 生成意味論(Generative Semantics)의 방법론으로 概念의 定立과 體系의 究明에 힘썼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研究態度의 變化가 위에 적은 여러 主張에 뚜렷이 投影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로 時制와 相의 概念¹⁴⁾만은 분명하여졌으나 形態와 意味의 錯綜 때문에, 실제적

13) cf. 노대규(1979) “상황소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제 4집』 탑출판사, p. 176.

14) 1940年代에 Slavonic languages에서 말하는 Aspect와 Aktionsart가 구별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①話者 對 動作의 관계에서時階를 설정하는 Tense와, ②話者와는 관계없이 오직 동작·행위

인 構造分析에 있어서는 韓英語 모두 아직도 混線을 빚고 있다. 이러한 實情을 참작하며 본고는 比較의 對象을 선정함에 있어서 Chomsky의 Aux 概念을 원용하기로 한다. Chomsky의 範疇規則(Categorial rules)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¹⁵⁾

$$S \rightarrow \left(\left(\begin{matrix} Q \\ \text{Imp} \end{matrix} \right) \right) (\text{Neg}) \overbrace{NP} \overbrace{Aux} \overbrace{VP}$$

.....

$$\text{Aux} \rightarrow \text{Tense (Modal) (have + en) (be + ing)}$$

$$\text{Tense} \rightarrow \left\{ \begin{matrix} \text{present} \\ \text{past} \end{matrix} \right\}$$

곧 시제는 現在時制와 過去時制 두개로 하고, 未來形은 Modal 로, 完了形(have+en)과 進行形(be+ing)은 Aspect으로 으로 각각 區別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Aux 範疇로 묶고 있다. 본고는 이 Aux의 概念과 그 分類에 따라서 以下 現在形, 過去形, 進行形, 過去完了形(곧 大過去), 未來形에 대한 兩語의 比較를 시도하고자 한다.

4. 現在形의 韓英比較

4-1 (現在의 幅員) 時間은 간단없이 흘러가는 連續이므로 区分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 둘러싸는 過程(상태·동작·작용)을 時間과 관련시킬 경우에도 連續의인 것으로 생각함이 당연하다. 이를테면 “地球는 둥글다” 또는 “The earth goes round the sun.”의 경우에는 時間을 区分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連續體인 「時間」을 区分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過程은 起點과 中間과 終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리고 이 区分은 인간의 主觀的인 생각에 의한 것이다.

「現在」도 連續을 “非連續”으로 포착한 概念으로서, 幾何學的의 “點”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의 時間的 樣態를 표시하는 Aktionsart와, ③ 時階와는 관계없이 동작·행위에 일정한 主觀的 限界를 표시하는 Aspect와의 根本的 差異가 뚜렷이 드러났다. 여기에 우리는 “時間的 意味”가 變換하는 濃淡의 明確한 段階를 볼 수 있게 되었다. cf. Matthews, P.H.(1974) *Morphology: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 Comrie, B.(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5) Chomsky(1965), *op.cit.*, p.43 & pp.102-127.

16) “時間”이라는 漢字熟語 자체가 “사이(間隔)”를 인정하고 있다. 곧 漢字 文化圈에서는 모든 過程을 “開始부터 終了까지”의 어떤 “間隔”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길이 過去쪽으로 延長되기도 하고 未來쪽으로 떨어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過去事이건 未來事이건, 話者が 그 일에 대하여 “現在의 心的 態度”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現在時制를 취한다.

따라서 韓英語의 現在形은 兩者 모두 現在의 狀態와 動作, 事건의 進行, 習慣의 反復의 動作, 執行文 (Performative Sentence)¹⁷⁾, 超時間的 真理등의 표현에 쓰인다. 그리고 이 경우 兩語사이에는 奇異하리만큼 거의 差異가 없다. 다만 英語에서 말하는 “解説의 現在”와 “記錄의 現在”는 한국어의 용법과는 質的인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4-2 (英語 特有의 “現在”用法) “解説의 現在”는 스포츠의 中繼放送등에서 聽取者들이 직접 볼 수 없는 光景을 解説者가 생생하게 설명하는¹⁸⁾ 데 쓰이는 것으로서 私的 動詞(Private verbs)¹⁹⁾의 용법과 關聯이 있어 보인다.

(1) …… and he *passes* the ball to Smith, and Smith *scores*!

(2) …… 보울을 李永守에게 패스했습니다. 李永守 성공(했습니다)!

英語의 “解説”은 現在形이지만, 韓國語에서는 實現形인 “과거”를 쓰고 있다. 이 “解説의 現在”에 비슷한 것으로 “突演의 現在²⁰⁾”가 있다. 이것은 自己自身の 동작에 解説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前者의 경우와는 달리, 韓國語에서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現在形이 쓰일 수 있다.

(3) 魔術師 : “I *place* the pigeon in the box and *close* the lid”

(4) 魔術師 : “비둘기를 상자 속에 넣습니다. 두경을 닫습니다.”

17) Performative sentence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主語가 1人稱이며 文의 형식이 現在·肯定·平叙라는 점이다.

a. 나는 그를 도와드릴 것을 約束합니다.

(= I *promise* you to *help* him)

b. 이 배를 안성호라고 命名합니다.

(= I *name* the ship Anseong-ho.)

c. 나는 두분이 夫婦임을 宣言합니다.

(= I *pronounce* you man and wife.)

18) cf. Palmer, F.R. (1965) *A Linguistic Study of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s, p. 83.

19) “Private verbs are those that refer to states or activities that the speaker alone is aware of. These are of two kinds, those that refer to mental activities and those that refer to sensations.” — Palmer, *op. cit.*, p. 95. Also see: Joos, M. (1964) *The English Verb. Form and Meanings*.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p. 116.

20) Palmer (1965), *op. cit.*, p. 83.

(5) 料理師 : " I *take* two eggs and *beat* them in this basin. Then I *add* sugar."

(6) 料理師 : " 계란 두개를 꼬집어내고 이 공기 속에서 휘젓습니다. 그리고서 설탕을 넣습니다."

"記錄의 現在(Annalistic Present)"²¹⁾는 過去의 사건을 順序대로 차례 차례 記錄의 形式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이러한 現在形은 文語體에 많지만 口語體에도 나타난다.

(7) [名探偵 Holmes가 사건의 經緯를 推理하여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

"Our lady *enters* the room, *advances* to the bureau, and either *opens* it or *tries* to do so. While she *is* thus engaged, young Willoughby Smith *enters* the room. In her hurry to withdraw the key, she *makes* this scratch upon the door. He *seizes* her, and she, snatching up the nearest object, which *happens* to be this knife, *strikes* at him in order to make him let go his hold. The blow *is* a fatal one. He *falls* and she *escapes*," — Conan Doyle, *The Golden Pince-Nez*.

위의 경우 韓國語에서는 보통 過去形이 쓰인다. 물론 韓國어에서도

(8) 材料를 사들인다. 基礎工事を 한다. 그리고 기둥을 세운다

(9) 患者는 診察券을 산다. 診察室로 들어가 기다린다. 다음에는 醫師가 시키는대로 姿勢를 취한다.

처럼, 사물의 製作過程이나 일의 順序등을 羅列할 경우 現在形 "- φ -"²²⁾가 보이나, 그것은 習慣的 내지 狀態의 특질의 表現이지²³⁾, 英語의 Annalistic Present처럼 과거사를 "現在의 關心事"로 變換시킨 서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歷史的인 事實을 눈앞에 마치 살아 있는

21) cf. Curme, G.O. (1931) *Syntax*. Boston: Heath, §37.1.d.

22) 일반적으로 動詞의 현재형은 "는/ㄴ"이라는 標識(marker)를 쓰고, 形容詞·述格詞의 현재형은 無標識("φ")로 하지만, 本稿에서는 徐正洙교수를 따라 모든 용언의 現在形을 "- φ -"라는 marker로 나타낸다. cf. 서정수 (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문법연구 제 3집」 탑출판사, pp. 99-93.

23) 現在形 "-φ-"로 나타내는 反復的·習慣的인 동작은 狀態性을 띠게 되어 超時間的인 서술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職業을 뜻하는 "그분은 회사에 나간다"와 같은 狀態 叙述도 본질적으로는 (8) (9)와 같은 類型으로 해석된다.

양 생생하게 서술하는 “史的 現在(Historical Present)” 또는 “劇的 現在(Dramatic Present)”도 韓國語에는 찾아 볼 수 없다.

4 - 3 (未來를 나타내는 現在形) 韓英語 모두 現在形으로 未來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10) 그이는 來年 外國에 간다.
- (11) 그런 나쁜 사람은 곧 亡한다.
- (12) 나는 來日 집에 있다.

(10)은 未來에 대한 推定이고, (11)은 主觀的인 所願이며, (12)은 確定된 計劃・決定이다. 그러나 英語에 있어서는 오직, 셋째 경우(確定된 計劃 決定)에만 現在形이 쓰인다.

- (13) Exams *begin* tomorrow.
- (14) I *start* work next week.

그러나 嚴密하게 따진다면, (10~14)를 “未來를 나타내는 現在形”이라고 일컫는 것은 時制와 時間의 混同이며, 言語의 意味와 現實世界의 혼동이라 할 수 있다. 動作 자체가 實現되는 時點은 물론 未來領域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實現”은 現在의 計劃에서 나온 結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 (13),(14)는 각각 Exams *are beginning* tomorrow. I *am starting* work next week.와 같이 고쳐 쓸 수 있으며, 오히려 進行形쪽이 보다 頻繁히 쓰인다. 이에 反하여 韓國어의 未來 表現에는 現在形인 “- ㅅ -”만이 쓰이고 進行形 “- 고 있 -”은 못쓰인다. 곧 위의 (10)(11)(12)를 “- 고 있 -”으로 代置하면 「非文」이 된다. 이 점은 “- ㅅ -”形態가 進行의 뜻을 가진 점과 함께 韓國語의 時相形態의 한 特色이라 할 수 있다.

4 - 4 (過去를 나타내는 現在形) 心理的으로 “回顧的인 時間把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例文처럼 Only yesterday he meets…… 라고 말하는 경우, 그 話者에게 “現在”의 知覺은 아마 없겠지만, 過去의 心像이, 선명한 內容과 더불어 感情的의 色調까지도, 再現되고 있을 것이다. 곧 그의 記憶이 感覺運動을 거쳐서 外的 知覺으로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 (15) His mind has got unhinged, I fear. Only yesterday he *meets* me in the street, *asks* me my name, and without waiting for reply *walks* off. ————— [The Kenkyusha English Grammar Series의 例文]

英語에 있어서는 과거의 體驗이 情的으로 表출되는 경우에만 現在形이 쓰인다. 그러나 한국어에 있어서는 現在形 “-ϕ-”가 過去事를 서술하는 頻度는 영어보다 월등하게 높다.

(16) 피리소리가 들려온다. 구슬픈 피리소리였다. 그런데 그 피리소리는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안달이 날 밖에 없었다. ————— 鄭飛石「名妓列伝」

위 이야기는 過去事인데도 現在形 “-ϕ-”과 過去形 “-었-”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自由로이 “-ϕ-”와 “-었-”이 서로 엇갈리고 어울리면서 過去事를 表現할 수 있는 것은 韓國語의 또 하나의 特色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制約이 없는 것은 아니다. 現在形 “-ϕ-”는 過去에 관한 “一連의 叙述(a series of statements)²⁵⁾인 경우에 限하며, 單一의 過去事에는 쓰이지 못한다. 곧 文脈上 “過去事의 叙述”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ϕ-”가 쓰일 수 있고, “過去狀況”없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과거 서술에는 “-ϕ-”가 쓰일 수가 없다. 따라서 다음 例文은 非文이 된다.

(17)*나는 지난 주 집을 고친다.

(18)*그 분은 어제 집에 있다.

하여튼 “過去狀況”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ϕ-”와 “-었-”이 自由로이 交替될 수 있다는 사실은 韓英語 사이의 근본적인 差異點을 보이는 것이며, 그 差異는 韓國語의 「表現에 있어서의 視點 移動」에 起因한다고 보아진다.

4-5 (視點의 移動·固定) 시간의 言語表現에 있어서, 韓國語는 그 視點을 移動시키며, 英語는 그 視點을 固定시킨다.

다음과 같은 例文에 있어서

(19) 나는 청소하는 사람을 { a. 때리겠다(未來)
b. 때린다(現在)
c. 때렸다(過去)
d. 때렸었다(大過去)

24) 영어에 있어서는, 引用文을 돌려싸고 said I, said he 대신에 says I, says he가 口語 또는 卑語로 쓰일 뿐이다. 例: “Peggotty” says I suddenly, “were you married?” “Lord, Master Davy, replied Peggotty. “What’s put marriage in your head?”…… “I don’t know! ——— You mustn’t marry more than one person at a time, may you, Peggotty?” “Certainly not”, says Peggotty, with the promptest decision. ——— Charles Dickens, *David Copperfield*.
25) cf. Miura, A.(1974) “The V-u Form vs. V-ta Form”, *Papers in Japanese Linguistics* 3, p.97.

‘청소하는’의 “-는-”은 時制上으로 現在인데도 主節의 동사는 각각 未來, 現在, 過去, 大過去(과거완료)로 되어 있다. 이러한 矛盾 때문에 南基心은 “國語의 時制는 說明이 되지 않으며”²⁶⁾ 따라서 “國語에서는 時制가 文法範疇로서 서기 어렵다”²⁷⁾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語에 있어서는 「發話時=現在」라는 관념 대신에 「視點의 移動」이라는 화자의 심리를 時制의 性格으로 인정한다면 (19)의 矛盾을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곧 話者는 그의 視點을 發話時點에서 離脱시켜 자유자재로 過去 또는 未來로 移動하면서 主節의 事件을 쳐다보고 있다고 說明할 수 있다.²⁸⁾

視點을 移動하는 한국어와는 달리, 英語의 視點은 처음부터 끝까지 固定的이다.

(20) I beat the boy who *had cleaned* the room.

이 경우, clean이라는 行為는 beat의 時點 以前에 있었기 때문에 過去完了로 되어 있다. 英語에선 이렇게 前後의 사건을 固定된 發話時點에서 一貫하여 쳐다보고, 그 行為의 前後關係를 形態上的 差異로 명시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한국어는 文法形式보다는 意味 為主로 발달된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主語 述語의 形式的 關係가 경시되고, 數(Number)나 性(Gender)의 一貫性 欠乏 등은 한국어의 意味志向性을 보이고 있어서, 文法的 形式을 重視하는 영어와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言語의 特性 때문에 한국어의 時相形態는 形式的 關係라기보다는 주로 意味를 나타내기 위한 裝置로 導入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영어의 時制形態는 의미전달 이외에 “時制의 一致” 또는 單純形과 完了形의 엄격한 区分 등 形式的 關係를 크게 重視하고 있다.

5. 進行形의 韓英比較

5-1 (迂言의 形態의 制約) 한국어의 進行形 “-고 있-”은 狀態性·非狀態性을 가릴 것 없이, 모든 動詞(狹意의)에 어울릴 수 있지만, 形容詞·存在詞·繫詞 등에는 쓰이지 않는다.

(21) 그 비밀을 안다. → 그 비밀을 알고 있다.

(21) 산이 푸르다. → *산이 푸르고 있다.

(23) 그 분은 교수이다. → *그 분은 교수이고 있다.

26) 南基心(1978) 「國語文法的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 p. 48.

27) *Ibid.*

28) cf. 柳原伊織(1978) “焦點, 場面, 視點의 移動” 「言語文化研究所 紀要 第10号」 東京: 慶應義塾大學, pp. 267-277.

영어의 "be + -ing"도 進行形이 아니라, "-ing"를 形容詞로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It's amusing."에 있어서 amusing는 very로써 修飾할 수 있으며, 또한 It's amusing to me. 처럼 前置詞句를 동반할 수 있으니 이 amusing는 形容詞이다. 그러나 같은 形態이지만 "You are simply amusing me."인 경우에는 me 라는 目的語를 가지고 있으며 very도 붙일 수 없으니 進行形으로 볼 수 밖에 없다.

[be + -ing]의 be 대신 sit, lie, stand, get, remain, keep, seem 등이 오는 경우에는, 그 動詞들이 繫詞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繫詞的 意味外에 動詞自体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 단순한 進行形으로는 볼 수 없다. 이를테면 "She sat looking."은 She was looking while she sat.의 뜻이지만, sit 까지도 進行形으로 고쳐서 She was sitting looking.도 可能하다. 또한 "He is there working"의 경우에도 He is there 라는 文에 working라는 分詞가 덧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穩當하며, 또 사실상 there와 working 사이에 休止를 놓을 수 있다.

史的으로 보면 [be + -ing]가 "進行"을 뜻하는 定形이 된 것은 17世紀 以後이며

(24) Thy mother and thy sister seek (= are seeking) thee.

Aelfric's translation of *Joshua X. xxv.*

(25) What dost thou(=are you doing) with thy best apparel on?

Shakespeare, *Julius Caesar* I. i. 8.

등은 當時로서는 標準的 語法이었다.²⁹⁾ 특히 The house is being built.이나 He was being taught to ride.와 같은 形態는 18世紀末까지 거의 쓰이지 않았고, 그 후에도 文法의 純正論者들에게 오랫동안 非難받아왔다.³⁰⁾

英國의 進行形이 發生的으로는, 狀態의 "permanence"를 표시하는 [be + 形容詞]였던, 韻律·脚韻과 관련된 文体上의 必要였던, 또는 "The house is a-building."에서 볼 수 있는 接頭辭 a-(= on, in, into, etc.)의 脫落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당초에는 單純時制와 進行形 사이에 渾然한 구별밖에 없었음은³¹⁾ 興味로운 점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語에서도 "進行中임"을 나타내는 데는 單純 現在形 "- φ -"와 "-고 있 -" 사이에 큰 差異가 없기 때문이다.

29) 마태福音 第9章 第3節의 英訳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Wycliffe訳 (1389年) This blasfemeth.
 欽定版 (1611年) This man blasphemeth.
 改訂標準版 (1946年) This man is blaspheming.

30) cf. Bradley, H.(1904) *The Making of English*. London: MacMillan, pp.69-70.

31) "Only vaguely differentiated from the simple forms"——Sweet, H.(1898) *A New English Grammar. Part II*. Oxford: Clarendon Press, §2203.

5 - 2 (進行形의 意味) Jespersen은 進行形의 意味를 그의 歷史的 說明에 關連시켜서 Frame-time(시간의 틀)이라고 하였다.³²⁾ 그는 "He is writing."은 He is on writing.(=He is in the course of writing)에서 나온 것이며, writing의 動作은 "now" 以前에 시작되어 "now" 以後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overbrace{\text{he has begun writing} \quad \boxed{\text{NOW}} \quad \text{he has not stopped writing}}^{\text{he is writing}}$$

위의 같은 Frame-time를 想定한다면 "現在"는 간단없이 過去로부터 未來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動作 狀態가 "現在"에서는 繼續 進行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叙述은 進行形을 취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單純現在形에도 now가 자주 隨伴한다. 進行形과 單純現在의 의미를 어떻게 區別할 것인가하는 問題에 대하여 Bodelsen은 「現在形은, 진행형과는 달리, "what is habitual or of general validity"를 나타낸다」고 答한다.³³⁾ 곧 Cows eat grass.는 一般에 通用되는 真理를 나타내고, The cow is eating grass.는 지금 눈앞에 그런 일이 展開되고 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區別이 明確하지 못할 경우도 많다.

- (26) a. You are looking fine. b. You look fine.
 (27) a. You are talking nonsense. b. You talk nonsense.

이렇게 區別이 모호한 理由는 영어의 發達過程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당초에는 單純時制의 意味領域이 넓었지만 점차 進行形의 發達로 그 의미영역의 蝕食당한 때문이다. 또 (26-b) (27-b)의 殘存은, 進行形이 단순시제의 領域을 蝕食은 하였지만 完全히는 단순시제를 驅逐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한국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進行形 "-고 있-"과 單純現在形 "-ㅅ-"와의 區別이 모호할 때가 많다.

- (28) 나는 그 노래를 알고 있다. (=그 노래를 안다)
 (29) 아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른다)

32) cf. Jespersen, O.(1909-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V: Syntax (Third Volume)*. London: George Allen & Unwin, p.180.

33) Bodelsen, C.A. "The Expanded Tenses in Modern English" *English Studien Vol.71.*, pp.220-238.

5 - 3 (韓國語 特有의 狀態敘述) 韓英語는 모두 進行형으로 于先 “進行 繼續中인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지만, 韓國語에는 영어와는 다른 特異한 “狀態敘述”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 (30) 地球는 太陽을 돌고 있다.
- (31)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위의 “-고 있-”도 進行의 時間性을 나타내고 있지만, 進行의 뜻 이외에 狀態敘述의 機能도 가지고 있어서, 學者에 따라서는 이 形態는 進行이 아니라 “超時間的인 真理 서술”이라고 斷定하는 이도 많다.³⁴⁾

이에 反하여 영어의 進行形은 원래 “mere occurrence”³⁵⁾로서의 孤立된 事件만을 나타내므로 超時間的인 서술 기능은 갖지 못한다. 이틀테면

- (32) What do you *do* for a living? ——— I *write* novels.
- (33)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 — I *am writing* novels.

인 경우, (32)는 職業을 云謂하고 있지만, (33)은 定職이 아니고 一時的인 生活方便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例를 든 (30)과 (31)을 比較해 보면, (30)의 “地球는 太陽을 돌고 있다”는 “…… 돈다” 또는 “…… 도는 중이다”라고 고쳐 쓸 수 있으나,

- (31) 그는 모든 것을 {
 - a. 알고 있다.
 - b. 안다.
 - c.*아는 중이다.

에 있어서, c는 “非文”이 된다. 이 경우 “안다/알고 있다”는 일단 알아버린 狀態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 ‘아는’ 過程이 繼續中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알다’는 狀態性 動詞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³⁶⁾

34) 崔鉉培: “이적 나아감”의 두께 끝은…… 언제든지 변하지 아니하는 항구한 진리와 어메에든지 다 그러한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리나니…… (『우리말본』 p. 452)

徐正洙: “고 있”은 “φ”와 마찬가지로 초시간적 서술을 한다. (前掲論文 p. 119)

35) Calver, E. “The Uses of the Present Tense Forms in English”, *Language Vol. 22*, pp. 317-325.

36) 조금더 일반화하여 “know는 進行形을 취할 수 없으니 狀態動詞이고, ‘알다’는 ‘알고 있다’라고 進行形을 취하므로 狀態動詞가 아니다”라는 主要은 이 경우 成立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 있-”은 狀態性 動詞에 쓰여서 現在의 狀態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非狀態性 動詞에 쓰이고서도 “狀態”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34) 그 여자가 의출옷을 { a. 입고 있다.
b. 입었다.

(34-a)의 “입고 있다”는 ‘입는’ 動作이 끝난 뒤의 상태, 곧 動作完結 狀態를 나타내고 있다.³⁷⁾ 進行形 “-고 있-”의 狀態叙述의 機能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찾아 볼 수 있다. 곧 孤立된 事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反復되기에 이르면 자연히 하나의 連續的 狀態를 형성한다.

- (35) 그는 { a. 지금
b. 가끔
c. 날마다
d. 요즈음 } 책을 읽고 있다.

a는 個別的·孤立的 동작의 進行이지만, b c順으로 점차 連續性이 짙어지고 狀態性이 이룩된다. d의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單一 動作의 進行 時間으로는 너무 길기 때문에 d는 “책을 읽는 動作”이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事實”을 나타내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는 곧 狀態의 叙述임을 뜻하는 것이다.

5 - 4 (反復的 動作과 時間語) “-고 있-”이 進行이나 反復을 나타내는 경우, 注目을 끄는 점은 時間語가 그 뜻을 거의 決定하고 있는 사실이다.

- (36) 그 사람은 { a. 지금
b. 날마다
c. 요즈음 } 노래를 부르고 있다. (a. 進行 …… 動作)
(b. 習慣 …… 狀態)
(c. 職業 …… 狀態)
- (37) 해는 동쪽에서 뜨고 있다. (超時間的 狀態)

英語에서도 마찬가지로 all day, all the year round, day after day 등의 時間語가 意味決定에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한다. 이를테면

37) 서정수 (1976), *op. cit.*, p.121.

- (37) The band *plays* all day.
 (38) The band *is playing* all day.
 (39) The band *is playing* all the year round.

(39)의 경우 常識的으로 一年中 終 日 繼續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이 英文은 빈번한 反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現實的으로는 終日의 繼續도 至難하므로 (38) 역시 단순한 계속이 아니라, 反復을 뜻하는 “比喩的인 繼續”을 뜻한다.

韓國語의 “終日 演奏한다”와 “...演奏하고 있다” 사이의 意味的 差異란 거의 느낄 수 없지만 英語의 進行形(38-39)과 單純形(37) 사이에는 그 差異를 뚜렷이 느낄 수 있다. 곧 (37)의 The band plays...는 文全体가 한 單位를 이루어 “終日 演奏”가 습관적으로 反復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The band plays all day every summer.와 같은 文脈을 豫想시킨다. 한편 (38)의 The band is playing...는 演奏(playing)가 하루에 여러 번 되풀이 하는 셈이다. 물론 The band is playing all day every summer.라는 文도 있을 수 있지만, 이 英文이 the-playing-of-the-band-all-day單位의 습관적 反復을 느끼게 하는 要因은 進行形에 있지 않고 every summer에 있다. 반면 單純現在에 있어서는 習慣的 反復을 느끼게 하는 要因은 이미 plays 自体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英語 進行形의 Descriptive Function³⁸⁾은 韓國어보다 훨씬 濃厚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다만 特性表示(Characterizing Function)³⁹⁾, 感情的 色彩(Emotional Coloring) 등의 機能만은 韓英 兩語에 共通的이라 할 수 있다.

5 - 5 (未來敘述의 差異) 한·영어의 進行形 比較에 있어서 두드러진 差異는 未來와 過去敘述에 나타난다. 곧 韓國어의 進行形 “-고 있-”은 未來의 敘述에 쓰이지 못하는데 反하여, 英語는 可能하다.

- (40) a. * 내일 그 책을 읽고 있다.
 b. 내일 그 책을 읽는다.
 (41) a. I *am reading* the book tomorrow.
 b. * I *read* the book tomorrow.

의 “視點의 移動” 탓으로 돌릴 수 있다.

38) Kruisinga의 용어. Poutsma의 *Relieving Function*에 해당함. cf.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art II, Section II*, pp.329-334.

39) When he is in Paris, he always reads Le Temps.와 When he is in Paris, he is always reading Le Temps.를 비교하면, 前者는 「파리에 있을 때 정해 놓고 읽는 新聞은 Le Temps이다」를 뜻하고, 後者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Le Temps만을 읽고 있다」를 뜻한다. 이렇게 「참상 ~ 하다」는 결국 「그러한 習慣이 있다」라는 뜻이므로 Poutsma는 Characterizing Function 이라고 부른다. cf.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art II, Section II*, pp.336-338.

다만 往来 発着을 뜻하는 韓國語의 진행형은 未來敘述이 가능한 것 같지만, 不可能하다는 “母國語의 直觀(intuition)”도 있을 수 있다. 徐正洙는

“미래 사전이나 상태의 표현에는 “ ϕ ”만이 쓰이고 “고 있”은 전혀 쓰이지 못한다.”⁴⁰⁾

라고 断定하고서 “그분은 내일 떠나고 있다”를 非文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

英語의 경우에는 往来 發着을 뜻하는 動詞 以外에 die, dine, do, meet, play, publish, send, shut, sleep, stay, write 등이 進行形으로 近接未來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이러한 近接未來의 意味는 원래 「進行」에서 由來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正午에 釜山을 出發하였으니 “He is arriving tonight.”가 되는 셈이며, 따라서 “He is arriving tomorrow.”라는 論語도 성립된다. 그러나 到着하는 마지막 時點에 焦點을 맞추면 위의 英文은 未來敘述이 되는 셈이다. 진행형의 未來敘述은 英語의 경우에도 원래 少數의 動詞로 制限되어 있었지만 口語에서 는 점차 擴大되고 있다. “Be going to”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進行의 意味를 喪失하고 단순한 未來 助動詞로 부리를 내렸다.⁴²⁾

5 - 6 (過去敘述의 差異) 현재진행형의 過去敘述은 韓國語에서는 頻度가 높지만 英語에서는 用例가 매우 드물다. 영어의 현재진행형은 원래 「話者의 視點을 進行過程안에 두고 그 眼前에서 전개되는 情況을 具象적으로 묘사하는 集注 敘述의 형식」이기 때문에 過去事를 말할 때 進行形을 쓰면 視線이 그 곳에 低徊하여 말의 進展이 늦어진다. 따라서 Historical Present Progressive가 全無한 것은 아니지만⁴³⁾ 과거사를 표현할 경우에는 單純時制인 Historical Present가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韓國語의 進行形 “-고 있-”은 過去狀況이 주어졌을 경우, 過去形 “-었-” 또는 過去進行形 “-고 있었-”등과 어울리면서, 過去敘述에 자주 쓰인다.

(42) 그 때는 밤이 깊었다. 그런데 成三問은 입궐하고 있다—朴鍾和, 「世宗大王」.

이러한 “-었-”과 “-고 있-”의 交替 可能性은 “- ϕ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國어 特有

40) 서정수(1976), *op. cit.*, p.124.

41) *Ibid.*, p.125.

42) Michigan 대학의 English Language Institute 에서는 未來助動詞로서 “be going to”만을 가르치고 있다. cf. Lado & Fries(1968) *English Pattern Practic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pp.53-56.

43) Historical Present Progressive의 例: This was briefly noticed in th May issue of the ‘Monthly Review’ A year later Goldsmith is writing mysteriously to his friend Bob Bryanton.——Dobson, *Eighteenth Century Vignettes*.

6. 過去形의 韓英比較

韓國語의 “-었-”은 過去라는 時制的 形式일 뿐만 아니라 相(Aspect)의 概念까지도 함께 나타내고 있으나,⁴⁴⁾ 본고는 “-φ-” “-고 있-” “-었-” “-있었-” “-겠-”을 각각 英語時制의 現在形, 進行形, 過去形, 過去完了形, 未來形에 對應시켜 比較·고찰을 進行하고 있다.

6-1 (單純過去와 過去進行) 물론 韓英語의 過去形은 모두 과거의 動作이나 狀態를 나타낸다. 그런데,

(43) 나는 10年前에 그이를 알았다.

(44) I *knew* him ten years ago.

라는 例가 말하듯이 過去의 한 瞬間에서 뿐만 아니라 그 過去時點의 앞 뒤로 펼쳐지는 些 甚 期間의 動作·상태도, 또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習慣的·反復的 動作의 表現에도 쓰인다. 다만, 現在時制와 같은 “現實 敘述”에 있어서는 相的 要素가 길게 섞여서 들어오지만, 過去는 現時點으로부터 一定한 距離를 두고서 把握하게 되므로 相的 要素인 繼續性 또는 反復性에 闕乏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韓英語 모두 單純 過去形과 過去進行形가운데서 自由롭게 選擇하는 것이 可能해진다. 이를테면,

(45) 네가 電話했을 때, 나는 책을 { a. 읽고 있었다.
b. 읽는 중이었다.
c. 읽었다.

(46) When, in August, they became engaged, she still hadn't asked him what he *did* for a living.—Ed Creagh, *Plan A, Plan B*

(47) At the other home, the husband nearly always *went* to the local. In summer he *played* bowls, in winter darts.—Nigel Sligh, *Two Ordinary People*

에 있어서 (45)의 과거진행형은 單純過去形 “-었-”으로 代置할 수 있으며, (46-47)의 *did*, *went*, *played*는 각각 進行形 대신 쓰인 것으로서 프랑스語의 “半過去(Imparfait)”의 용

44) 金允經, 李崇寧, 李熙昇, 정인승의 學校文法에서는 “-었-”이 「過去」라고만 되어 있으나; 崔鉉培, 許雄, 羅鎮錫은 「完了 또는 過去」로; 金鶴得은 「完了 또는 持續相」으로 보았고; 朴昌海, 南基心은 「完了」로만 보고 있다.

법에 해당한다.⁴⁵⁾

6 - 2 (現在完了와의 關係) 영어의 경우, 過去時制로 표출되는 과거사는 現在로부터 隔離된 것으로 把握되고, 現在完了形으로 표현되는 事象은 " 現在와의 關係 "에서 把握된다. 따라서

(48) He *lived* here for some time.

(49) He *has lived* here for some time.

에서 (48)은 he가 그 후 죽었는지, 떠난 곳으로 가버렸는지 分明하지 않지만, (49)는 he가 現在도 이 곳에 살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 現在로부터의 隔離感 」은 결코 時間的 距離의 長短에 比例하지는 않는다. 바로 直前의 일이 過去로 把握되는가 하면, 썩 오래된 일이 " 現在와 關係있는 " 일로 把握되어 現在完了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 점은 yesterday, last year와 같은 過去時制用 副詞와, 現在完了에 쓰이는 this week, this year를 서로 比較해 보더라도 쉬이 알 수 있다.

(50) My brother *bought* two hats *this morning*.

(51) My brother *has bought* two hats *this week*.

위의 두 文을 比較해보면, 購入時間도 (51)이 더 以前이며, 距離感도 (51)이 더 먼 때도 다만 this week가 아직 완전히 過去로 흘러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現在完了形을 취하고 있다.

(52) I *thought* Professor Kim was to lecture.

(53) I *thought* he was an intimate friend of y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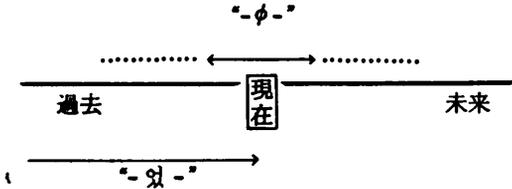
(52)는 금방까지 그렇게 생각하였는 때도 過去로 표출함으로써 現在는 自信이 없음을 暗示하고 있으며, (53)은 現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話者의 "삼가하는" 心情이 過去時制를 택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英語에서는 同一 事件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過去로 파악하느냐, 혹은 現在와 關聯시켜 파악하느냐에 따라 時制가 달라진다.

한국어의 過去形 "-었-"도, 영어의 現在完了처럼, 狀態가 현재까지 펼쳐 있음을 나타낸다. 곧 現在形 "- ϕ -"은 現在時點을 중심으로 前後로 펼쳐고 있는데 反하여, "-었-"은 다음 圖示와

45) 오랜 기간에 걸친 動作・狀態도 그 前後의 時間과 구별되는 경우에는 繼續性・反復性을 경시할 수 있다. 이러한 時상을 仏語에서는 單過去 (Passé simple)와 半過去 (Imparfait)로서 구별하지만, 英語에서는 모두 過去時制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이 過去에서 부터 現在까지 펼쳐지 됨을 표현한다.



따라서 “-었-”은 ① 現在狀態의 發生, ② 현재까지의 進行, ③ 현재까지의 反復 또는 習慣, ④ 現在 完結, ⑤ 現在完結 狀態, ⑥ 현재까지의 持續등을 나타낼 수 있다.

- (54) 그 고기가 지금 막 { a. 살았다.
b. 살아 났다. (現在狀態의 發生)
c. 살게 되었다.

(54-a)의 “살았다”는, 動作의 完了가 아니라,⁴⁶⁾ “살아 있는 狀態”가 現時點에서 發生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現時點에서의 發生”이란 엄격히 따진다면 現在 瞬間 바로 前에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았/었-”은 역시 過去 志向의이며 또한 “-φ-”와 對照되는 점이기도 하다.

- (55) 철수는 지금까지 밥을 { a. 먹었다. (現在까지의 進行)
b. 먹고 있었다.
(56) 그 분은 요즈음 그림을 그렸다. (現在까지의 反復/習慣)

(55)는 現在時點까지의 進行을 나타내며 (cf. 英語의 Present Perfect 또는 Progressive Present Perfect), (56)은 反復的·習慣的 動作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 쓰이는 時間副詞는 그 意味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는 要素는 抑壓되고 “지금까지”의 意味的 要素만을 顯出시킨다.⁴⁷⁾

- (57) 나는 이 책을 막 읽었다. (現在完結)

46) cf. a. 그는 지금 빨간 옷을 입었다..... 狀態
b. 외출옷을 다 입었니?——용, 다 입었다..... 動作의 完了
47) 이에 反하여 “-φ-”는 現在時點을 中心으로 앞과 뒤로 펼쳐진다.

- (58) 그녀가 예쁜 옷을 { a. 입었다. (現在完結狀態)
 b. *입어 있다.
 c. 입고(서) 있다.
- (59) 나는 지금까지 20 년동안 영어를 가르쳤다. (現在까지의 持續)

(57)은 動作의 “完了”에 焦點을 두고 있으나 (58)은 그 結果인 “狀態”에 더 重點을 두고 있다. 一般的으로 “-었-”이 “完結狀態”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었-”을 “-어 있-” 또는 “-고(서) 있-”으로 代替할 수 있다.⁴⁸⁾ (59)에서는 動作의 反復이 習慣化됨으로써 일종의 “狀態”가 現時點까지 持續됨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英語의 過去形과 完了形은 그 區別이 분명하지만⁴⁹⁾ 韓國語의 “-었-”은 過去事의 叙述 以外에 “現在까지의” 狀態/進行/反復/持續등을 모두 서술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6-3 (真理와 未來 叙述) 영어의 過去時制는, 비록 頻度는 낮지만, 과거사 뿐만 아니라 現在事, 未來事의 표현에도 쓰인다. 이것은 “過去에는 언제나 이랬다. 그러니 現在・未來에도 이렇게 되리라”라고 推定하는 표현법이다.

- (60) Men *were* deceivers ever. — Shakespeare, *Much ado*, II. iii. 65.
 (61) 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id* run smooth. — Sh.,
Mids. N. D., I. i. 134.

다음과 같은 過去形도 반드시 時間的으로 過去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 (62) How did you know I *was* here?
 (63) He decided to do it before his father *came*.

(62)는 “내가 現在 여기 있는 (I *am* here) 줄 어떻게 알았느냐?”의 뜻인데도 過去時制가 쓰이고 있고, (63)은 “父親이 오기 前에”라는 뜻이므로 “come”의 時間이 현실적으로 過去라고 斷定할 수 없다. 곧 發話時點 以後인 “未來時”에 실현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韓國語의 過去形 “-었-”은, 英語보다 더욱 頻繁히, 未來 叙述에 쓰인다.

- (64) 너는 來日이면 죽었다. (未來完結)
 (65) 나도 내일 그 車를 샀다. (未來完結)

48) “-어 있-”과 “-고(서) 있-”은 서로 Complementary distribution 을 이룬다.
 49) 英語의 경우에도, OE, ME에서는 過去形과 完了形은 구별없이 쓰이었다. Shakespeare 에도 다음과 같은 用例가 나온다. You *spoke* not with her *since*? — *King Lear*, IV. iii. 35.

(64)는 來日이라는 時點에선 “죽음”이 完結된다는 뜻으로, 推定的인 未來形 “내일이면 죽겠다/죽을 것이다” 또는 斷定的인 現在形 “죽는다”보다도 훨씬 強調的·威脅的 效果가 크다.⁵⁰⁾ (65)도 “그 車를 사겠다”는 意圖를 “未來完結”을 통하여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국 英語에 있어서는 「過去에는 언제나 이러했으니, 現在·未來에도 이러하리라」하는 思考에서 과거시제가 未來敘述에 쓰이고, 이에 반하여 韓國語에서는 “視點”을 未來領域으로 前進 移動시키고 그 基準點에 있어서의 完結相을 “-었-”으로 나타내므로, 결국 現在基準으로는 過去形이 未來를 서술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7. 大過去의 韓英比較

한국어의 “-었었-”은 종래 過去完了 또는 大過去라고 일컬어졌으며 近來에 와서 “斷統相”⁵¹⁾ 이니 “確認 強調의 叙法”⁵²⁾ 이니 하는 새로운 主張도 나오고 있지만 그 形態의 意味는 “過去보다 그 以前에 어떤 동작 상태가 일어났다가 그것이 사라졌음을 나타낸다”라고 종합할 수 있다.

이에 對應하는 영어의 過去完了形은 Pluperfect, Preterite Perfect, Past Perfect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時制는 現在를 基準으로 하면 現在完了形 내지 過去形이 되었을 것을, 過去의 한 時點을 基準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겨난 變形으로서, 그 基準點 以前에 일어났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形式이다. 따라서 現在形으로 고쳐 쓰면 現在完了形이 되는 경우와 단순한 過去形이 되는 경우가 있다. He said that he had just arrived there는 現在完了가 변모한 경우이며, He told me that he had arrived the day before는 “I arrived yesterday.”라는 過去形의 변모이다. 그러나 주어진 過去完了形이 그 두가지 중 어느 쪽에 屬하는지 判別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이것은 원래 “過去”와 對立的인 “前過去(before-past)”⁵³⁾ 라는 時間概念이 영어의 時制에 없어서 부득이 그 역할을 過去完了形이 兼任하고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韓英語 모두, 일어난 事件을 單文으로 시간적 順序를 따라 늘어 놓을 경우에는 過去形만이 쓰이지만, 그 敘述 順序가 바뀌어지면 “大過去”가 쓰이게 된다. 이를테면

50) 英語의 경우에도, 恐囑의 의도가 개입될 때는, John will die가 아니라, “John dies tomorrow at 9 a.m.”라고 흔히 말한다고 Lakoff는 主張한다. cf. Lakoff, R.(1970) “Tense and Its Relation to Participants”, *Language* 46, p.845.

51) cf. 南基心(1978), *op.cit.*, pp.12-14.

52) cf. 成書徽(1974) “經驗의 형태 {었}에 대하여” 「문법연구 제1집」 탑출판사.

53) cf.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pp.255-277.

- (66) My friend arrived last night ; *we dined sumptuously at the hotel*, went to the theater afterwards and had a quiet little supper in a restaurant.
- (67) My friend arrived last night; we went to the theater and had a quiet little supper at a restaurant. *We had dined rather sumptuously at the hotel.*

(66)는 時間的 順序를 따랐기 때문에 모두 過去形이지만, (67)에서는 그 順序를 바꾸어, 앞서 있었던 "dined"를 追加表現으로 덧붙였기 때문에 過去完了形이 되어 있다. 그밖에 主節과, 從屬節 사이의 時間的 前後關係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과거완료가 쓰이지만, 大體로 과거완료 代身에 單純 過去形이 쓰이는 趨勢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韓國語에 있어서도 接統型 語尾 또는 接統副詞를 사용하여 時間的 順序대로 서술할 때는 過去形이 쓰인다.

- (68) 나는 국민학교를 { a. 졸업하고
b. 졸업하였다. 그리고 }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한편, 時間的 前後關係와 관련하여 過去의 一定時까지의 經驗 繼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大過去 (곧 過去完了)가 쓰인다.

- (69) 나는 잃었었던 책을 찾았다.
(70) 여기 오기까지는 서울에 살았었다.

그러나 둘 以上의 독립된 單文으로 나누어졌을 경우에는 單純 過去形이 쓰인다.

- (71)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어에서는 單文의 集合이 時間적 前後關係를 형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점은 韓·英語 사이의 두드러진 差異라 할 수 있다. 英語에선 (67)처럼 獨立된 文이라 하더라도 時間的 順序가 바뀌어지면 앞선 일을 過去完了로써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었었-"은 時間的 前後關係 外에 "斷統"-어떤 狀態의 持續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점이 특히 注目을 끈다.

- (72) 나는 그 내용을 알았었다.
(73) 그 여자는 예뻐있었다.

(72)는 “지금 이 瞬間에는 그 內容이 생각나지 않는다”를 示唆하며, (73)은 “現在는 兎에 빠르게 보인다”라는 含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斷統”의 意味 機能은 영어의 過去完了에는 없으며, 그 機能은 Anomalous Finite⁵⁴⁾인 “used to”가 대신 担当한다. (cf. I used to know the matter./ She used to be beautiful.)

8. 未來形의 韓英比較

8-1 (未來表現의 性格 差異) 根源의 으로 생각한다면, 韓國語에도 영어에도 文法形式으로서의 未來形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시간이란 시시각각 未來로부터 現在로 흘러오고 있으니 「現在時点에서 생각하는 意圖 推量」만을 표현할 수 있다면 不便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意圖로서 표현하느냐 推量으로 표현하느냐가 問題가 될 것이다.

한국어의 “-겠-”은 一次的으로 “意圖”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점차 “推量”의 色調가 짙어가고 있고, 그 밖에 “~할 것이다/~할 수 있다/~할까 싶다/~하마”등도 意圖·意志라기 보다 “推量” “可能”을 통하여 未來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英語에서는 모든 思考가 自己中心의이며 그러기에 自他의 對立意識이 강하여, 文은 主語中心이고, 그 主語의 意志의 作用 與否가 述語에 명확히 나타난다. 여기에도 西歐的인 權利·義務의 강한 意識이 反映되고 있으며, 理性的·論理的인 合理主義를 엿볼 수 있다. 韓國語는 이와 對照的으로, 自他의 對立이 희미하여, 主語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 文章은 자연히 述語中心의 表現이 된다. 그러므로 述語에다 主語의 意志를 顯出하기 곤란할 때가 많으며, 또한 顯出할 필요도 없을 때가 많다.

8-2 (形態의 機能의 錯綜) 未來表現을 위한 現代英語의 形式으로서 Geoffrey Leech 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⁵⁵⁾

- (74) a. *Will/shall* + Infinitive: The parcel will arrive tomorrow.
 b. *Be going to* + Infinitive: The parcel is going to arrive tomorrow.
 c. Present Progressive: The parcel is arriving tomorrow.
 d. Simple Present: The parcel arrives tomorrow.
 e. *Will/shall* + Progressive Inf: The parcel will be arriving tomorrow.

이 다섯 가지 表現形式에 대하여 H.C. Wekker 는 1968년부터 1975년까지의 新聞雜誌와 電

54) cf. Palmer, H.E. (1924) *A Grammar of Spoken English*. Cambridge: Heffer, § 264.

55) cf. Leech, G. (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s.

波媒体등을 対象으로 삼고 그 頻度를 조사하였는데 그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⁵⁶⁾

(75) 蒐集된 未來表現의 總數 …… 2,428		
分 布 状 況	a. <i>Will / shall</i> + Infinitive	1653
	b. <i>Be going to</i> + Infinitive	134
	c. Present Progressive	90
	d. Simple Present	494 (但 主節안에서는 93)
	e. <i>Will / shall</i> + Progressive Inf.	57
合 計		2428

數字上으로는 單純 現在形이 第2位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大部分은 從屬節 안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역시 英語의 주요한 未來形은 *will/shall* 와 *be going to* 라는 結論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will/shall* 의 位置는 如前히 不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韓國語에 있어서도 未來를 표현하는 形式은

(76) 내가 그 책을	{	읽겠다.
		읽을 것이다.
		읽을 터이다.
		읽으마.
		읽으리라.
		읽을까 싶다.

등 여러가지⁵⁷⁾ 있으나, 주요한 未來形으로서는 “-겠-”과 “-리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리겠-”은 起源的으로는 <리+名詞>의 統辭的 構成으로 해석되지만,⁵⁸⁾ 言語現實에 있어서는, 한 덩이로 化하여 未然性, 推定, 意圖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겠-”은 주로 意圖(意志)를, “-리겠-”은 推定(推量)을 나타내는 傾向이 짙어서, 이 兩者는 각각 “意志”와 “義務”의 語源을 지닌 *will, shall* 와 對應시킬 수 있는 점이 興味롭다.

英語의 *will/shall* 는 그 起源的 意味로 말미암아 먼저 假定法에 쓰이게 되었고, 假定法과 時制의 밀접한 關係는 다시 두개의 要素를 영키게하여 결국 單純未來와 意志未來의 分岐를 초래했다고 보아진다.

56) Wekker, H.C.(1976) *The Expression of Future Time in Contemporary British English*. Amsterdam: North-Holland.

57) 例文은 金敏洙(1971) 「國語文法論」 一潮閣, p.285에서 借用한 것임.

58) 徐正洙(1978) “‘-리겠-’에 관하여——‘-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國語學 第6輯」 塔出版社, p.87.

單純未來에는 본디 shall가 主語의 人稱에 關係없이 쓰였지만, 18世紀에 와서 I shall, you will, he will; shall I? shall(will) you? will he? 의 用법이 確立되었고, 그 用법은 規範的으로는 今世紀에 이르기까지 變치고 있다.

그러나 이 用法은 오늘날의 言語實現에서 볼 때 적어도 다음 세가지 修正이 必要하다.⁵⁹⁾

i) 美國英語는 물론이고 英國英語에 있어서도 shall는 形式的인 경우에만 쓰이고 口語에 있어서는 모든 人稱에 will를 쓰는 傾向이 매우 짙다.

ii) 口語에서는 I'll go/What'll we do? 처럼 縮約形 'll가 쓰이는데, 이 縮約形은 본디 will에서 끌어낸 것이지만 shall의 短縮으로 느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iii) 第2人稱 主語의 疑問文은 will만을 쓰는 傾向이 확고부동하여 shall는 口語體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意志未來”에 있어서는 如前히 shall가 쓰이지만, 話者의 “約束”을 뜻하는 shall는 [ʃəl]라고 發音되고, 強制와 脅迫을 뜻할 때는 [ʃæɪ]라고 強形으로 發音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注目되는 現象의 하나는, I shall……의 shall에 強勢를 놓으면 I will보다 더욱 강조된 “斷乎한 決意”를 나타낸다는 점이다.⁶⁰⁾

(77) I shall visit a dentist tomorrow. — [Grattan - Gurrey]

(78) I shan't go till you pay me. — S. Maugham

이러한 用法은 “非強調에 의한 強調”와도 一脈 相通하는 것으로서, 言語의 多面性을 體察하게 한다.

한국어의 “-겠-”은 一次的으로 “意圖”를, “-리겠-”은 “推定”을 나타낸다함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推定の “-리겠-”>은 人稱의 制約을 받지 않지만, <意圖의 “-겠-”>은 意味上 第1人稱에만 쓰인다.⁶¹⁾

(79)	人 稱	“-겠-”	“-리겠-”
	1 人 稱	나는 그 책을 읽겠다	나는 그 책을 읽을 것이다
	2 人 稱	* 너는 그 책을 읽겠다	너는 그 책을 읽을 것이다
	3 人 稱	? 그이는 그 책을 읽겠다	그이는 그 책을 읽을 것이다

59) cf. Ishibashi, K. et al(1973) *Seibido's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Tokyo: Seibido, p. 334.

60) cf. Grattan, J.H.G. & Gurrey, P.(1925) *Our Living Language*. London: Nelson.

61) 徐正洙(1978), *op.cit.*, p. 97.

“-겠-”이 第2人称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第3人称에는 자주 쓰인다. 이렇게 쓰이는 “-겠-”은 “-리 것-”과 마찬가지로 推定을 나타내지만, 起源的인 “意圖”의 殘色이 작용하여 主觀性이 농후한 推定이 되며, 反面에 “-리 것-”은 客觀的인 推定이 된다.

(80)	“-겠-” (主觀的 推定)	-리 것- (客觀的 推定)
a.	(내 느낌에는) 내일 비가 오겠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오겠다.
b.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나겠다.	(일정에 따르면) 그이가 내일 떠날 것이다.
c.	그가 지금 집에 있겠다.	그가 지금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正反對되는 用例가 없는 것은 아니다. 英語에서도 (77)(78)처럼 I will 보다 I shall 가 強力한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겠-”이 推定을 표시하고 “-리 것-”이 意圖를 표시하기도 한다.⁶²⁾

- (80) 잘못하다가는 나는 그 女子를 만나겠다. (推定)
- (81) 그는 영리한 사람이겠다. (推定)
- (82) 나는 기어이 학위를 따낼 것이다. (意圖)

위와 같은 特殊狀況과 그리고 shall 의 減少 傾向까지 고려한다면, “-겠- / -리 것-”과 “will / shall”의 対応關係는 다음과 같이 圖示할 수 있을 것이다.

人 称	-겠-	will	-리 것-	shall
1 人 称	意圖 또는 推定	意圖 또는 推定	推定 또는 意圖	推定 또는 意圖
2 人 称	推定 (稀)	推定	推定 (또는 意圖)	(稀)
3 人 称	推定	推定	推定 (또는 意圖)	(稀)

9. 結 言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韓英語의 時制 사이에는 —当然한 일이지만— 적지않은 差異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差異를 초래하는 큰 要因으로는, 첫째, 兩語의 言衆이 동사의 相的

62) Ibid., p.106.

素性を 각각 다르게 把握한다는 사실, 둘째, 영어는 論理的인 文法形式을 重視하고, 반면에 한국어는 意味를 重視하며 따라서 時間線上的 "視點"이 수시 移動한다는 점, 셋째, 時間副詞를 비롯한 狀況素(Dexis)가 兩語의 意味 統辭構造이 미치는 影響이 각각 다르다는 점, 넷째, 영어의 完了相은 形態의으로 각각 單純時制로부터 分離되어 定着하였지만, 한국어의 完了相은 "-었-"과 "-있었-"등에 混合되어 있다는 점, 등에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兩語의 各 時制가 共通의으로 지니는 意味特徵이 있다는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共有的인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영어의 現在形은 모두 "現存하는" 觀念·情緒를 表출한다. "現存하는" 觀念·情緒는 현재사 뿐만 아니라 過去事도 未來事도 또는 超時間的인 現象까지도 包容할 수 있으며, 따라서 "timeless"한 特徵을 지니게 된다.⁶³⁾ 이 "timeless"에는 물론 現在時가 包含되며, 그 "現在時"는 "now"의 兩側으로 한없이 뻗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2) 한·영어의 現在進行形은 모두 過去와 未來에까지 뻗칠 수 있지만, 그 "進行"이라는 色調의 濃淡이 「時間線上的 前後 限界」를 구분하고 있다. 곧 單純現在形처럼 막연히 過去·現在·未來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前後 限界가 어느정도 뚜렷이 "区分되어"⁶⁴⁾ 있으며, 따라서 心理的 集中이 일어나며 感情도 混入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景致를 漠然히 내다볼 때는 그다지 美的 感覺이 일어나지 않지만 「窓 外」이나 「寫眞」이나 「캔버스」로 그 景致를 "区分"하면, 일종의 心理的 統一과 緊張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美的 感覺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現象이다.

(3) 過去形의 意味特徵은, 한·영어 모두, "現實의 場面으로부터 隔離된 사실"⁶⁵⁾ 이라고 말할 수 있다. 假定法의 過去形도 역시 "現實의 장면으로부터 隔離"된 것이므로 "非現實"을 뜻하게 된다.

(4) 未來形의 意味特徵은 "現在改善의 慾求"를 미래에 投影하거나, "現時點에 있어서의 想像"을 인식하는 作用이라고 볼 수 있다. 한·영어 모두 未來形을 「時間的 反映」으로 보기를 꾀리는 것도 이 까닭이다. 원래 言語란 의사소통의 手段이며, 의사소통은 經驗과 意見의 交換이기

63) cf. "It must be admitted that the present is *timeless* in some cases but only in so far as present time is timeless, in that it extends without limit on both sides of 'now.'"——Palmer, F.R.(1965), *op. cit.*, p. 84.

64) "limitation of duration"——Joos, M.(1964) *The English Verb. Form and Meanings*.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p. 113.
"limited duration"——Twaddell, W.F.(1960) *The English Verb Auxiliaries*. Providence: Brown Univ. Press, p. 7.
"definite"——Sweet, H.(1898), *op. cit.*, § 2203.

65) cf. "The referent (what is specified by the subject-verb partnership) is absent from that part of the real world where the verb is being spoken."——Joos(1964), *op. cit.*, p. 121.

때문에 言語의 時間的 反映은 과거(곧 經驗)와 현재(곧 意見)를 mark 할 수 있으면 充分한 것이다. (1980.1.31.)

- Summary -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Tense Forms

Kang, Soo Un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meanings of the tense and aspect forms of Korean with those of English. Thus, the morphological devices of “- ㅅ -” “- ㅆ -” “- ㅁ -” “- ㅂ -” and “- ㅅ - / - ㅆ - 것 -” were contrasted respectively with the *present*, *present progressive*, *past*, *past perfect*, and *future* tense forms of the English language in order to see the seman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nse systems.

The *present* tense forms, in both languages, indicate events or states “existing” physically in speech time or mentally in the speaker’s thoughts.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present* is timeless and that it extends without limit on both sides of “now.”

Practical usage of the English tense forms, however, tells us that the speaker of English gives importance to the logical formality of its syntactic structure and follows the sequence of tenses. On the other hand, the speaker of Korean attaches more importance to the contextual meaning than to the grammatical formality. Once a certain temporal situation is given, the speaker is allowed to move his point of sight along the “line of time” and often different tense forms are used to denote the same “time event” in the same sentence or discourse.

The *present progressive* form of Korean is, too, provided with descriptive, characterizing and emotional-coloring functions as likewise in English. Only seldom is the Korean form used to denote the immediate future.

The *past tense* forms, in both languages, denote events or states that are absent from that part of the real world where the verb is being spoken. In addition, the Korean *past* forms involve an aspectual element which is equivalent to the *present perfect* tense in English. Hence, Korean students of English sometimes commit an error in making “overgeneralizations”: e.g. *Many people have been dying in 1950. (for Many people died in 1950.)

As *will* / *shall* involve both modal and future meanings, so do the Korean future forms “- ㅅ - / - ㅆ - 것 -.” As *will* is superseding *shall* in simple future or in volitional future, so, in Korean, the use of “- ㅅ -” is no longer restricted to the *first person* or to the denotation of *volition*, but it has come to denote both *simple* and *volitional* future events and states.